

# Harper's BAZAAR TALK



## I AM A SHAMAN

아티스트이자 샤먼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영국 출신의 아티스트 매튜 스톤(Matthew Stone)이 청담동 초이앤라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사진, 회화, 퍼포먼스, 3D 조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가 탐구해온 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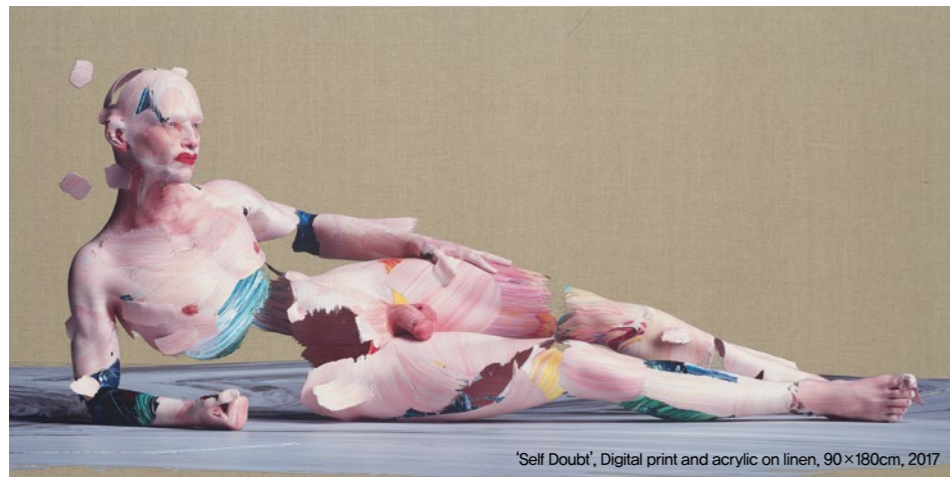
'Other People's Energy', Digital print and acrylic on linen, 200×350cm, 2017

폭염 경고 알람이 무던히 울려대던 지난여름, 청담동 초이앤라거 갤러리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매튜 스톤의 개인전 〈Back Into The Body〉가 열렸다. 신작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경험한 유체이탈에서 모티프를 얻은 대형 회화들이 관객을 압도한다.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나체들이 거친 붓질 사이로 보인다.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상의 공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유체이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몸에서 빠져나와 꿈의 공간을 부유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야무지게 ‘물입’된 헤어를 찰랑이며 그가 말했다. 오프닝 하루 전날, 갯빛 워커를 신고 스키니한 회색 팬츠와 셔츠를 깔끔하게 맞춰 입은 매튜 스톤은 흰색 노트를 들고서 작품의 제목을 붙이는 데 여념 없었다.

이번 신작들은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사진과 회화의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전달한다. 붓질 특유의 질감과 3D 기술로 만든 탁월한 입체감이 도드라진다. 매튜 스톤은 작품을 위해 7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먼저 투명한 유리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3D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에 아카이빙한 여러 이미지들과의 합성 작업을 거친다. 완성

된 디지털 이미지를 캔버스에 프린트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것. 전통적인 회화처럼 오직 한 개의 에디션만 찍어낸다. “지도 바로 ‘뚝뚝’ 하고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웃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건 재미없잖아요. 색깔도 조합해서 만들어야 하고 판 위에 그 색을 칠하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작품을 위해 몇 달을 매달려야 할 만큼 노동집약적인 방법이다. 작가는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3D 회화’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매튜 스톤은 예술이 주는 긍정주의가 세상의 어둠과 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Optimism’이란 단어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줄곧 ‘몸’이라는 수단에 천착해왔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 전시 〈Optimism as Cultural Rebellion〉에서 매튜 스톤은 누드 사진과 그것을 이용한 입체적인 조각, 독창적인 설치 작업을 보여준 바 있다. 사진, 회화, 조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영역을 넘나들며 가장 복잡하고 영적으로 진화해온 작가의 정신적·육체적 세계관이 이번 전시에 응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튜 스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먼’이란 영적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의 일상엔 뭐랄까, 도인에게 가까울 만큼 고요하고 비범하다. 이를테면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습지 지역이 있는데 매일 최소 한 시간 그곳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식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행위인데 그 방법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그 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통의 방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행위죠.” 샤먼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요셉 보이스 때문이라고 했다. 그가 전투기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고 당시 유목민들에게 구조되어 그 부족의 샤먼에게서 강렬한 치유의 경험을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요셉 보이스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한 매



'Self Doubt', Digital print and acrylic on linen, 90×180cm, 2017

사진 / Courtesy of the artist and CHOI & LAGER Gallery, Cologne / Seoul

튜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 보이스의 삶, 퍼포먼스, 예술, 샤먼에 관한 아이디어는 모두 그때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도 그런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픈 상태를 회복하면서 제 스스로를 샤먼이라 부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발효 음식과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 서울 어디에 가면 무당을 만날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묻던 눈빛, 제주 해녀들에게서 받은 강렬한 영감. 매튜 스톤은 매사 진지하게 동양의 철학과 문화에 대한 맹렬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드러냈다.

현 시대의 예술가란 누구인지 정의 내려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자, 그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샤먼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웃음)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방식은 ‘분리’에 가깝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사람과 자연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흥미롭고 친절하며 관계적이고 젊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매튜 스톤은 순수미술과 대중문화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는 작가다. 그를 둘러싼 흥미로운 인물관계도를 그려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뮤지션 FKA 트위그스와 패션 화보 작업을 하고, 패션 디자이너 가레스 푸의 런웨이 뮤직을 디자인해주며 아티스트 마리아 아브라모비치와는 필터링 없는 농담을 주고 받는 사이다. 시애틀로 요즘 ‘힙하다’고 느껴지는 건 10여년 전에 이미 다 수료하고 온 사람이랄까. 한때 DJ로서 10년 동안 가레스 푸의 패션쇼를 위해 음악을 만들어왔던 매튜에게 이번 〈Back Into The Body〉 전시회 오프닝에 어떤 음악을 틀고 싶은지 물었다. “관객을 춤추게 만들기 위한 음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전히 작품을 위해서? 후자라면 직접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초월 상태로 깊게 몰고 갈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 것 같아요. 당신이 작품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오왕오왕오왕’ 소리를 40분 동안 계속 틀어놓는 거죠.(웃음)”

35살의 영국 출신 젊은 작가는 20대부터 아티스트, 음악가, 패션 디자이너 등의 사람들과 모여 빈 건물을 점령해 작업을 하고 밤새도록 파티를 열며 그 안에서 예술적 유전자를 키워온 이력이 있다. 사진, 퍼포먼스, 회화 등 광범위한 장르를 다루며 순수미술과 대중문화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왔다. 런던 남부 지역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WOWOW!’는 그가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주목 받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여기에 모인 동시대 아티스트들은 런던 패컴 (Peckham) 지역의 비어 있는 오래된 백화점 건물을 발견하고 6개월 동안 머물며 그곳을 일종의 스튜디오처럼 사용했고 전시회를 열었다.(아티스트들이 도시 외곽 지역의 폐허를 찾아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는 것은 런던, 파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종의 경향이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돈을 들이지 않는 삶이었지만 무척 창조적으로 살았어요. 길거리

에서 주운 가구를 들고 슈퍼마켓이 문 닫기 직전에 공짜로 나눠주는 음식들을 큰 가방 안에 담아서 가져왔죠. 삶의 모든 것이 퍼포먼스의 한 부분 같았어요. 전시장과 함께 클럽으로 그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당시 얼어 죽을 것 같았던 11월에 클럽을 찾아준 사람들이 무려 2천 명 정도였어요.(웃음) 모두가 함께 일하고 물건을 나누고, 재활용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통해 협업, 소통, 사회에서 계급이 필요하지 아닌 지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었어요.”

매튜 스톤은 수없이 많은 파티를 통해 뮤즈와 멘토를 만났다. 뉴욕에서 열린 비오코의 생일 파티에서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그 후 그녀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서펜타인 갤러리에 갔을 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일부러 알은체하지 않았으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했던가.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이리 와!”라며 매튜를 먼저 불렀다. “그 후로 여러 번 그녀를 만났어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죠. 언뜻 보면 심각하고 영적인 것만 같은 사람이지만 그녀는 더러운 농담을 아주 사랑해요.(웃음) 작업에 있어서는 진지하지만 그 밖의 것에는 한없이 유머러스하죠. 우리 둘은 유머 감각이 아주 잘 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튜 스톤은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뮤지션 FKA 트위그스의 스타성을 알아보고 잡지를 통해 그녀를 주목하게 한 사람이기도 하다. “저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어메이징’하다, 꼭 한번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시 인터넷상에서는 그녀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던 시기였죠. 매거진



'Feminine Teachers', Digital print and acrylic on linen, 200×120cm, 2017

〈iD〉 패션 화보로 만났을 때 저는 그녀를 커버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애석하게도 인쇄 잡지가 인터넷보다 발 빠르게 앞서서 뮤지션을 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동안 잡지는 수많은 셀브리티를 발굴했죠. 지금은 인터넷이 그걸 대체하고 있긴 하지만요.” 요즘 어떤 잡지를 즐겨 읽는지 묻자 술술 답이 나온다. “〈Beat〉와 〈Juice〉, 작은 잡지인데 사진도 정말 훌륭하고 언더 신에 있는 젊은 밴드에 대해 쓰죠. 블론디(Blondie)의 데비 해리(Debbie Harry)가 〈Beat〉의 커버로 등장하기도 했어요. 이 잡지는 멋진 건 다하는 것 같아요.(웃음)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 만드는 잡지 (gal-dem)도 즐겨 읽습니다.” 만약 〈허프스 바자〉 코리아의 섹터비 이슈의 커버를 맡기면 어떻게 작업하겠냐고 너스레를 떨자 이렇게 말했다. “Oh My God!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요? 모델로는 마리아카를라 보스코노가 어떨까요? 패션 화보 촬영이라면 그녀와 다시 작업해보고 싶어요. 이번 전시처럼 3D 형태의 그림으로 찍어보는 거죠! 근데 작업 시간은 얼마나 줄 수 있는 데요(웃음)?” ■ 에디터/ 김아름